

올해 1월부터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의 의뢰를 받아 매월 자동차 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는데, 본 섹션에서는 경매시장 동향을 살펴본다. 경매시장 전체 거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계절지수 분석부터 시작하였다. 더 큰 그림으로, 경매시장이 신차, 중고차, 수출 시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테마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경매시장 전체 거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계절지수 분석부터 시작하였다. 더 큰 그림으로, 경매시장이 신차, 중고차, 수출 시장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테마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01.

### 1. 경매 낙찰 계절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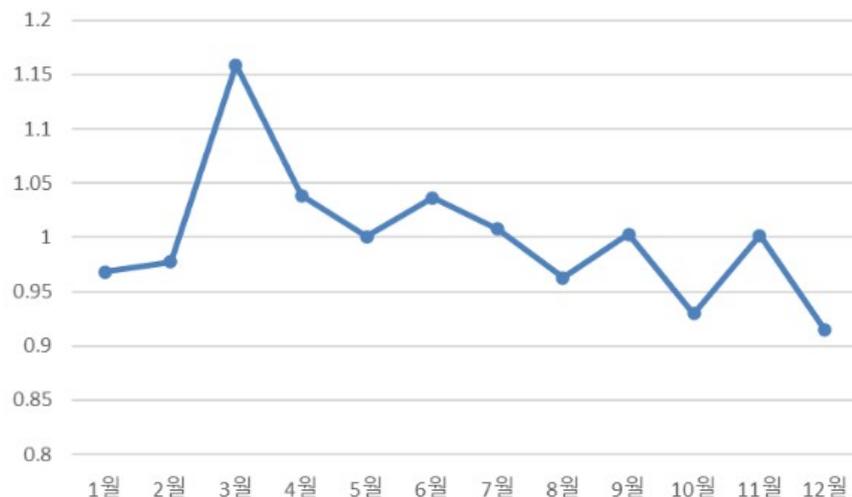
경매시장 경쟁력 분석

요약 및 시사점

#### 1. 경매 낙찰 계절지수 분석

<그림 1>은 2022년 이후 지난 4년간 경매 낙찰건수를 기초로 산출한 계절지수이다. 계절지수는 1.0을 기준으로 1.0보다 크면 성수기, 작으면 비수기를 의미한다. 경매낙찰은 3월에 뚜렷한 정점을 보인 이후 대체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패턴에서 7월에 상대적 성수기를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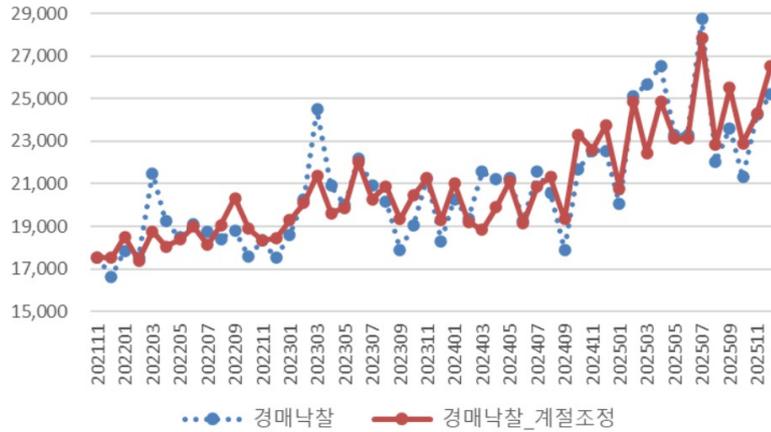
<그림 1> 경매낙찰 월별 계절지수



자료 : (사)전국자동차경매장 홈페이지 경매관련 데이터

특정 월의 경매 낙찰 대수가 전월 대비 호조인지 부진인지를 판단할 때 원자료(raw data)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경매 낙찰 대수는 3월에 뚜렷한 스파이크를 보인 이후 감소 국면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계절적 패턴을 나타낸다. 이러한 계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2025년 경매 낙찰 대수가 2월 대비 2.3%했다고 이를 호조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월 대비 3월의 계절지수 자체가 약 18.5%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치는 오히려 9.9% 감소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소는 향후 경매 낙찰 대수 분석 시 계절 조정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장 동향을 해석하고, 보다 정확한 통찰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림2> 경매낙찰대수 추이 (2021년 11월 ~ 2025년 12월)



자료 : (사)전국자동차경매장 홈페이지 경매관련 데이터

<그림 2>는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경매 낙찰대수를 원자료와 계절조정 자료로 함께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는 원자료 기준으로 낙찰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면 실질적인 감소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2025년 11월의 회복세 역시 구조적인 성과 개선이라기보다는 계절적 효과의 반영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한편, 2025년 12월의 낙찰대수는 원자료 기준으로 25,216대로 전월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계절조정 낙찰대수는 26,553대로 전월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월간 변동을 넘어, 계절조정 기준에서의 실질적인 개선 폭이 원자료에서 관찰되는 것보다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 02.

경매 낙찰 계절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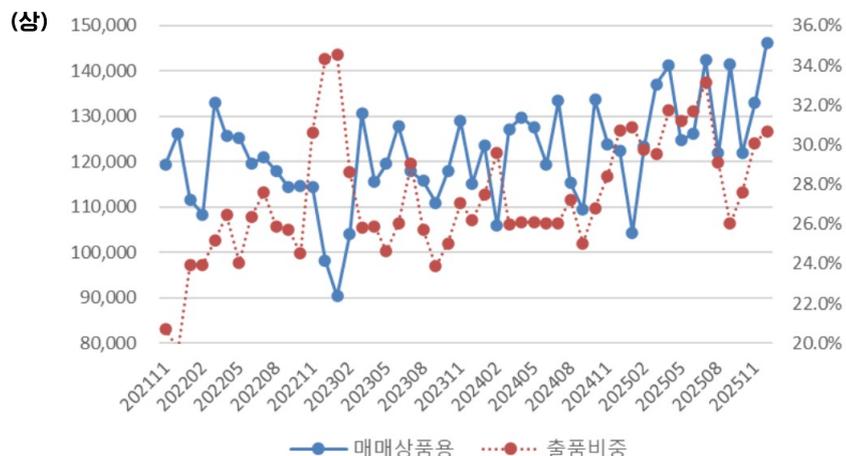
### ▶ 2. 경매시장 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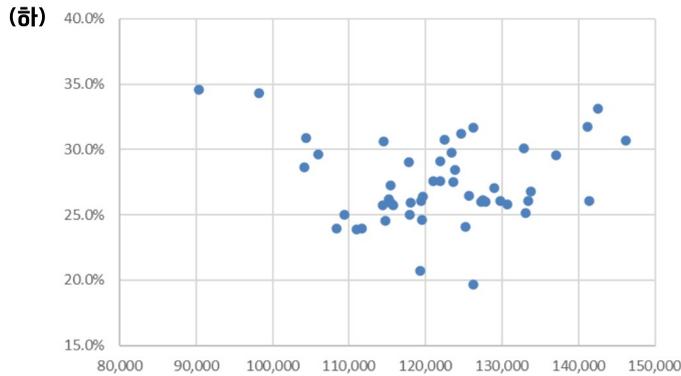
요약 및 시사점

#### 2. 경매시장 경쟁력 분석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차량 수는 기본적으로 매매상품용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거래대수에 의존한다. 다시 말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량이 경매시장에 출품되고, 출품된 차량이 실제로 낙찰되는지의 패턴을 분석하면 현재 경매시장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3> 월별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와 경매출품비중 추이(상) 및 스캐터플롯(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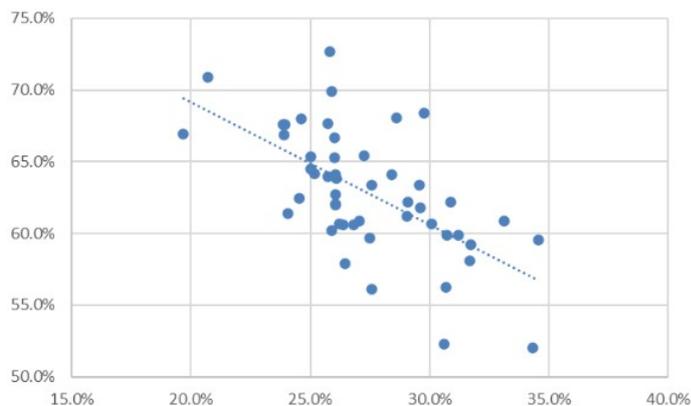
자료 : (사)전국자동차경매장 홈페이지 경매관련 데이터

<그림 3>의 위쪽 패널은 월별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대수와, 이 중 경매시장에 출품되어 낙찰된 차량 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낙찰출품대수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대수는 뚜렷한 계절적 패턴을 보이면서도, 2021년 11월 약 12만 대 수준에서 2025년 약 14만 5천 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낙찰출품대수의 비중은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이후 하락하며,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대수의 흐름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그림 3>의 아래쪽 패널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X축은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대수, Y축은 낙찰출품대수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두 변수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즉, 낙찰출품대수의 비중은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의 증감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경매시장의 낙찰출품대수가 중고차 전체 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더라도 그 흐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즉, 현행 운영 구조하에서는 중고차 시장의 확대가 곧바로 낙찰출품대수의 의미 있는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경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출품 구조와 낙찰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4> 경매출품비중 (X축)과 경매낙찰률(Y축) 스캐터플롯



자료 : (사)전국자동차경매장 홈페이지 경매관련 데이터

<그림 4>는 경매출품비중(X축)과 경매낙찰률(Y축)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스캐터플롯이다. 전반적으로 경매출품비중이 높아질수록 낙찰률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출품물량 증가가 곧바로 낙찰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하며, 그 원인이 양질 차량의 출품 부족에 있는지, 또는 경매 참여 업체들의 판매·소화 능력(판매력) 제약에 있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 03.

경매 낙찰 계절지수 분석

경매시장 경쟁력 분석

▶ 3. 요약 및 시사점

## 3. 요약 및 시사점

본 섹션은 2025년 12월 기준 한국 경매시장의 계절적 특성과 구조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매 낙찰대수는 강한 계절성을 보이며, 원자료 기준의 단순 전월 대비 비교는 시장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3월을 정점으로 하는 계절적 패턴을 감안할 때, 계절조정 자료 기준 해석이 필수적이다. 2025년 12월 경매시장은 계절조정 기준에서 전월 대비 9.3% 증가해, 원자료에서 관찰되는 수치보다 실질적인 개선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말 시점에서 경매시장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와 경매 낙찰출품비중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아, 중고차 시장 성장 흐름이 경매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경매출품비중이 높아질수록 낙찰률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확인되어, 출품 물량 확대만으로는 거래 효율성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경매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다.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량 확대보다는 출품 구조의 질적 개선과 낙찰 메커니즘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총괄)	수석 객원연구원
조성봉	김원태	고석빈